



2차 과제

4월 1주차

시가문학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유종권, '강설(江雪)'

산이란 산에는 새 한 마리 날지 않고	千山鳥飛絕
길이란 길에는 사람 흔적 끊어졌네	萬徑人蹤滅
외로운 배 안의 도롱이 입은 늙은이	孤舟蓑笠翁
홀로 낚시질하네 찬 강엔 눈만 내리고	獨釣寒江雪

(나) 이이, '고산구곡가(高山九曲歌)'

일곡(一曲)은 어드매오 관암(冠巖)에 해 비친다
평무(平蕪)*에 내 걸히니 원근(遠近)이 그림이로다
송간(松間)에 녹준(綠樽)*을 놓고 벗 오는 양 보노라

이곡(二曲)은 어드매오 화암(花巖)에 춘만(春滿)커다
벽파(碧波)에 꽃을 띄워 야외(野外)에 보내노라
사람이 승지(勝地)를 모르니 알게 한들 어떠리

삼곡(三曲)은 어드매오 취병(翠屏)*에 잎 퍼졌다
녹수(綠樹)에 산조(山鳥)는 하상기음(下上其音)*하는 적에
반송(盤松)*이 바람을 받으니 여름 경(景)이 없어라

* 평무: 풀이 우거진 들판.

* 녹준: 술잔.

* 취병: 이끼가 끼어 푸른 병풍 같은 절벽.

* 하상기음: 오르락내리락하면서 지저귀.

* 반송: 옆으로 퍼져 운지 있는 소나무.

(다) 미상, '유산가'

제비는 물을 차고, 기러기 무리져서 거지 중천(居之中天)에 높이 떠서 두 나래 훨훨 펴고, 펄펄펄 백운 간(白雲間)에 높이 떠서 천리 강산 머나먼 길을 어이 갈꼬 슬피 운다.

원산(遠山)은 첩첩(疊疊), 태산(泰山)은 주춤하여, 기암(奇巖)은 층층(層層), 장송(長松)은 낙락(落落), 에 이구부러져 광풍(狂風)에 흥을 겨워 우줄우줄 춤을 춘다.

층암 절벽상(層巖絕壁上)의 폭포수(瀑布水)는 팔팔, 수정렴(水晶簾) 드리운 듯, 이 골 물이 주루루룩, 저 골 물이 쌀쌀, 열에 열 골 물이 한데 합수(合水)하여 천방저 지방저 소쿠라지고 평퍼져, 넉출지고 방울져, 저 건너 병풍석(屏風石)으로 오르령 팔팔 흐르는 물결이 은옥(銀玉)같이 흩어지니, 소부 허유(巢父許由) 문답하던 기산 영수(箕山潁水)가 예 아니냐.

[문제 1]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6)

- ① (가)에 비해, (다)는 화자와 대상의 거리가 멀다.
- ② (나)에 비해, (다)는 우리말의 묘미를 살리고 있다.
- ③ (다)와 달리, (나)는 스스로 묻고 답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 ④ (가), (다)와 달리, (나)는 계절의 변화가 드러난다.
- ⑤ (나), (다)에 비해, (가)는 화자의 감정이 절제되어 있다.

[문제 2] (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7)

- ① ‘산 → 길 → 배 → 낚시질’로 시선이 옮겨가고 있다.
- ② ‘새’와 ‘길’은 외부 세계와의 연결이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 ③ ‘날지 않고’와 ‘끊어졌네’는 시적 공간의 적막함을 강조한다.
- ④ ‘사람 흔적’은 ‘늪은이’가 살아온 삶의 흔적을 의미한다.
- ⑤ ‘눈만 내리고’는 ‘늪은이’의 고독을 심화한다.

[문제 3] <보기>의 관점에 따라 (나)를 해석한 내용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28)

<보 기>

우리는 흔히 어떤 아름다운 풍경을 보고 ‘그림 같다’고 감탄한다. 이러한 감탄은 우리가 은연중에 풍경을 우리 머릿속에 있는 어떤 이미지나 관념과 비교하고 있음을 알게 한다. 조선조 시가의 작가들은 실제 풍경뿐 아니라, 실제 풍경을 볼 때 동원되었거나 실제 풍경으로부터 촉발된 ‘마음 안의 풍경’까지 표현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마음 안의 풍경’은 당대 그림이나 다른 문학 작품 등에서 추출되고 재구성된 것으로, 작가의 주관에 따라 이상화된 관념적인 풍경이다. 이러한 마음 안의 풍경을 그려 내고자 했다는 점, 작가 자신마저도 그 풍경의 일부이고자 했다는 점은, 자연을 대상으로 하는 고전 시가를 이해할 때 중요하게 고려할 사항이다.

- ① ‘원근이 그림이로다’의 ‘그림’은 마음 안의 풍경을 의미하겠군.
- ② ‘녹존’을 놓고 ‘벗’을 기다리는 화자도 풍경의 일부라고 볼 수 있겠군.
- ③ ‘야외’는 화자의 마음 안 풍경을 떠올려 주는 실제 풍경이겠군.
- ④ ‘승지’는 작가가 꿈꾸는 이상적인 자연의 모습을 의미하겠군.
- ⑤ 당대 다른 작품에도 ‘취병’, ‘녹수’, ‘반송’ 등의 시어가 등장할 수 있겠군.

[문제 4] <보기>는 (나)를 배운 후, '시조의 정형성이 지닌 의미'에 대해 탐구한 내용이다. 이로부터 이끌어 낼 수 있는 생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9)

<보 기>

- 시조의 3장 형식(의미의 3단 구성)은 어떤 기능을 했을까?
 - '말'로 지어지고 불러지는 상황에서, 정해진 형식이 표현의 부담을 줄여 줌. → 신속하게 다양한 표현을 할 수 있음.
- 왜 이런 형식이었을까?
 - 의미의 3단 구성은 고전 시가 장르 전반에서 두루 확인되는 특성임. → 이를 양식화한 것이 시조의 형식임. → 학습이 용이하고 적용 범위가 넓음.

- ① 시조를 즉석에서 주고받을 수 있었던 것은 형식이 고정되어 있어서 가능했겠군.
- ② 시조를 잘 짓기 위해서는 작품을 통해 형식을 내면화하는 과정이 필요했겠군.
- ③ 시조의 형식은 다른 시가의 구조를 파악할 때도 유용한 참조가 될 수 있겠군.
- ④ 시조 작가는 내용에 앞서 형식을 창안하느라 힘들었겠군.
- ⑤ 규칙이 오히려 표현의 자유를 가능하게 한 것이겠군.

[문제 5] (다)의 전개 방향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0)

- ① 비애의 정서에서 유희의 정서로 나아가고 있다.
- ② 후반부로 가면서 3.4조의 울격이 파괴되고 있다.
- ③ 화자의 시선이 원경에서 근경으로 옮겨가고 있다.
- ④ 후반부에서는 대상에 대한 묘사가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 ⑤ 후반부로 갈수록 시각적 이미지와 청각적 이미지가 두드러진다.

현대 소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지금부터 그걸 하나씩 내게 퍼 보이도록 해라.”

초현은 여전히 말없이 고죽이 시키는 대로 했다. 첫장은 고죽이 삼십 대에 쓴 것으로 우세남(虞世南)의 체를 받은 것이었다.

“우백시(虞伯施)의 글인데, 오절(五節=덕행, 충직, 박학, 문사, 서한)을 제대로 본받지 못했다. 왼쪽으로 미뤄 놓아라.”

그 다음은 난초를 그린 족자였다.

“이미 소남(所南=정사초)을 부인해 놓고 오히려 석파(石坡=대원군)의 그늘을 벗어나지 못했구나. 산란(山蘭)도 심란(心蘭)도 아니다. 왼쪽으로 미뤄 놓아라.”

고죽은 한 폭 한 폭 자평(自評)을 해 나갔다. 오랜 원수의 작품을 대하듯 준엄하고 냉정한 평이었다. 글씨에 있어서는 법체(法體)를 본받은 경우에는 그 임모(臨謀)나 집자(集字)의 부실함을 지적하고, 그리고 자기류(自己流)의 경우에는 그 교졸(巧拙)과 천격(賤格)을 탓하면서 모두 원편으로 제쳐놓았다. 그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옛법의 엄격함에다 자신의 냉정한 눈까지 곁들이니, 또한 오른편으로 넘어갈 게 없었다.

새벽부터 시작된 그 작업은 아침 해가 높이 솟을 때까지 계속되었다. 나중에 정박사가 몇 번이고 감탄했던 것처럼 거의 초인적인 정신력이었다. 아침부터 물려든 사람들로 고죽의 넓은 병실은 어느덧 발디달 틈 없이 뻗 뻗해졌다. 그러나 엄숙한 기세에 놀려 누구도 그 과도한 기력의 소모를 말할 엄두를 못 냈다. 고죽도 초현 외에는 아무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았다.

그러다가 열 시가 넘어서야 분류가 끝났다. 결국 초현의 오른쪽으로 넘어간 서화는 단 한 폭도 없었다.

“더 없느냐?”

[A] 마지막까지 간절한 기대에 찬 눈으로 자신의 작품을 검토하고 있던 고죽이 더 이상 제자의 무릎 앞에 놓인 서화가 없는 것을 뻘뻘 보면서 이상하게 불안에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네.” 초현이 무감동하게 대답했다. 그러자 고죽의 얼굴에 일순 처량한 빛이 떠돌더니 그때까지 깨끗하던 고개가 힘없이 떨구어지며 그의 몸이 스르르 무너져 내렸다.]

그러나 고죽은 그 순간도 명료한 의식으로 내면의 자기에게 중얼거리고 있었다. 결국 보이지 않았다. 나 역시 일생에 단 한 번이라도 그걸 보고자 소망했지만, 어쩌면 그 소망은 처음부터 이를 수 없는 것이라는 걸 실은 알고 있었는지도 모르지.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이 일을 미루어 온 것인지도 모르지…….

그렇다면 고죽이 그의 일생에 걸친 작품에서 단 한 번이라도 보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바로 그 새벽의 꿈에서와 같은 금지조였다. 원래 그 새가 스승 석담으로부터 날아올 때는 굳센 힘이나 투철한 기세 같은 동양적 이념미의 상징으로서였다. 그러나 고죽이, 끝내 추사에 의해 집성되고 그 학통을 이은 스승 석담에게서 마지막 불꽃을 태운 동양의 전통적 서화론에서 벗어나게 되면서 그 새 또한 변용되었다. 고죽의 독자적인 미적 성취 또는 예술적 완성을 상징하는 관념의 새가 되어 버린 것이었다.

< 중 략 >

“이걸 써서 밖으로 가지고 나가거라. 장독대 옆 화단이다.”

“?…….”

좀체 스승의 말을 되묻지 않는 초현도 그때만은 좀 이상한 모양이었다.

“나는 저것들로 일평생 나를 속이고 세상 사람들을 속여 왔다. 스스로 값진 일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당연한 듯 세상 사람들의 감탄과 존경을 받아들였다.”

“무슨 말씀을…….”

“물론 그와 같은 삶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는 아니다.”

“.....”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나는 그것들에서 솟아오르는 금시조를 보기를 간절히 원했다. 그것으로 내 삶이 온전한 것으로 채워질 줄 알았다. 그러나 지금은 설령 내가 그 새를 보았다 한들 과연 그러할지 의문이다.”

“.....”

“자. 그럼 이제 시키는 대로 해라. 이것들을 남겨 두면 뒷사람까지도 속이게 된다.”

그러자 초헌은 말없이 서화 꾸러미를 안고 문을 나섰다. 스승의 참 뜻을 알아들었기 때문인지, 아니면 더는 영을 거역할 수 없기 때문인지도 알 수 없지만,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아무도 그런 초헌을 말리려 나서지 않았다. 언제부터인가 고죽을 감돌고 있는 이상한 위엄과 기품에 압도된 탓이었다.

“문을 닫지 마라.”

초헌이 나가고 누군가 문을 닫으려 하자 고죽이 말했다. 그리고 마당개로 걸어가고 있는 초헌을 향해 임종을 앞둔 병자답지 않게 높고 뚜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거기다 모두 내려 놓아라.”

방안에서 한눈에 들어오는 장독대 곁 화단이였다. 몇 포기 시들어가는 풀꽃 옆에 초헌이 서화 꾸러미를 내려 놓자, 고죽이 다시 소리 높여 명령했다.

㉠“불을 질러라.”

그제서야 방 안이 술렁거렸다. 일부는 고죽을 달래고 일부는 달려나와 초헌을 붙들었다. 모두가 쓸데없는 소란이었다. 자기를 달래는 사람들을 거들떠보지도 않은 채 고죽이 돌연 벽력 같은 호통을 쳤다.

“어서 불을 붙이지 못할까!”

그런데 알 수 없는 것은 초헌이었다. 그 역시 까닭 모르게 노한 얼굴이 되어 잠깐 고죽을 노려보더니, 말리려는 사람을 거칠게 제쳐 버리고 불을 질렀다. 뒷날 고죽을 사이비(似而非)였다고까지 극언한 것으로 보아, 그의 내면에 숨겨져 있던 석담 선생적인 기질이 고죽의 그 철저한 자기 부정(自己否定)과 또는 지나친 자기 비하(自己卑下)에 반발한 것이리라. 마를 대로 마른 종이와 형겅인 데다가 개중에는 기름까지 먹인 것도 있어 서화더미는 이내 맹렬한 불꽃으로 타올랐다. 신음 같은 탄식과 숨죽인 흐느낌과 나지막한 비명들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다.

어떤 사람에게는 고죽 일생의 예술이 타고 있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처절한 진실이 타오르고 있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고죽의 삶 자체가 타는 듯도 보였다. 드물게는 불타는 서화더미가 그대로 그만한 고액권 더미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었다. 반 세기 가깝게 명성을 누려 온 노대가, 두 대통령이 사람을 보내 그의 서화를 얻어가고, 국전 심사위원도 한 마디로 거부한 고죽의 진적(眞蹟)들이 한꺼번에 타 없어지고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때 고죽은 보았다. 그 불길 속에서 홀연히 솟아오르는 한 마리의 거대한 금시조를. 찬란한 금빛 날개와 그 험한 비상을.

— 고죽이 숨진 것은 그날 밤 8시경이었다. 향년 72세.

- 이문열, 금시조(金翅鳥)

[문제 1] 위 글로 미루어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31)

- ① 석담과 고죽은 예술에 대한 관점이 달랐다.
- ② 고죽은 예술관의 차이로 스승의 곁을 떠났다.
- ③ 초현은 견해의 차이에도 스승의 뜻을 따랐다.
- ④ 고죽의 서화는 고가(高價)로 판매되기도 하였다.
- ⑤ 고죽은 사람들로부터 예술적인 명성을 인정받았다.

[문제 2] [A]에 드러난 '고죽'의 심리와 가장 유사한 것은? 32)

- ① 아아, 어이하리. 내 홀로 / 다만 내 홀로 지닐 즐거운 / 무상한 열반을 / 나는 꿈꾸었노라. / 그러나 나도 모르는 어지러운 티끌이 / 네 맘의 맑은 거울을 흐리노라. / 몸은 설워라. / 허물 많은 사바의 몸이여!
- ②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여! / 허공 중(虛空中)에 헤어진 이름이여! / 불러도 주인(主人) 없는 이름이여! /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 심중(心中)에 남아 있는 말 한마디는 / 끝끝내 마저 하지 못하였구나. /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 ③ 깨진 그릇은 / 칼날이 된다. / 절제(節制)와 균형(均衡)의 중심에서 / 빛나간 힘. / 부서진 원은 모를 세우고 / 이성(理性)의 차가운 / 눈을 뜨게 한다. / 맹목(盲目)의 사랑을 노리는 / 사금파리여, / 지금 나는 맨발이다. / 베어지기를 기다리는 / 살이다.
- ④ 지는 저녁해를 바라보며 / 오늘도 그대를 사랑하였습니다. / 날저문 하늘에 별들은 보이지 않고 / 잠든 세상 밖으로 새벽달 빈 길에 뜨면 / 사랑과 어둠의 바닷가에 나가 / 저무는 섬 하나 떠올리며 울었습니다.
- ⑤ 눈은 살아 있다. / 죽음을 잊어버린 영혼(靈魂)과 육체(肉體)를 위하여 / 눈은 새벽이 지나도록 살아 있다. / 기침을 하자. / 젊은 시인이여 기침을 하자. / 눈을 바라보며 / 밤새도록 고인 가슴의 가래라도 / 마음껏 뱉자.

[문제 3] ㉠의 근본적인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33)

- ① 현실 세계를 예술 작품에 담아내지 못해서
- ② 옛 법제(法體)의 엄격함을 이어가지 못해서
- ③ 만족스러운 예술의 경지에 도달하지 못해서
- ④ 자기 작품에 대한 명성이 유지되지 못해서
- ⑤ 자신의 작품과 같이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

[문제 4] <보기>의 관점에서 '고죽'을 비판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4)

<보 기>

'시는 시인의 입을 떠나는 순간 시인의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듯이 예술 작품을 생산하는 사람은 작가이지만, 완성하는 것은 독자이다.

- ① 예술은 직관적 깨달음을 바탕으로 해야 하는가?
- ② 예술은 반드시 사회적 효용성을 가져야만 하는가?
- ③ 작가가 자기 작품의 가치를 주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가?
- ④ 전통적인 방식을 벗어나 완성한 작품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
- ⑤ 자신을 가르친 스승을 부정해야만 대가(大家)가 될 수 있다는 것인가?

[문제 5] '자평(自評)'에 해당하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35)

- ① 글씨에 힘과 기교가 느껴지지 않는구나.
- ② 난초의 모습을 실감나게 그려내지 못했구나.
- ③ 그림과 글씨가 서로 균형이 잡히지 않았구나.
- ④ 모양은 흉내냈으나 정신을 담아내지 못했구나.
- ⑤ 사물을 그려냈으나 생동감이 나타나지 않는구나.

고전 소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심생(沈生)은 서울의 양반이다. 약관의 나이에 용모가 매우 준수하고, 풍정(風情)이 넘쳤다.

어느 날 운종가(雲從街)*에 나가 임금님의 거동을 구경하고 돌아오던 길이었다. 건장한 여종이 자주색 명주(明紬) 보자기로 한 처녀를 덮어씌워 등에 업고, 머리를 땀은 여종은 주홍색 비단신을 들고 뒤를 따르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어림짐작으로 보자기 안의 몸을 재어 보니 어린 여자 아이는 아니었다. 드디어 심생은 바짝 붙어 뒤를 쫓았다. 멀찍이 따르다가 소매로 스치며 지나가기도 하면서 눈은 한순간도 그 보자기를 떠나지 않았다. 걸음이 소광통교(小廣通橋)*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회오리바람이 앞에서 일어나 자주색 보자기를 반이나 들추었다. 아나 다를까 처녀가 나타나는데 복숭아 빛 발그레한 뺨에 버들가지 같은 가는 눈썹, 초록 저고리에 다홍치마, 연지분이 몹시 고와 설핏 보아도 절색이었다.

[A] 처녀도 보자기 속에서 어렴풋하게 아름다운 소년이 쪽빛 두루마기에 초립(草笠)을 쓰고, 좌우 이쪽저쪽으로 따라오는 것을 보고 있었다. 추파(秋波)를 들어 보자기 밖의 소년을 한참 주시하던 중에 보자기가 걷히고 버들 같은 눈과 별 같은 눈동자 네 개가 부딪쳤다. 놀라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했다. 보자기를 당겨 다시 덮어쓰고 자리를 떴다.]

심생이 어찌 그대로 놓치겠는가! 곧장 뒤를 쫓아갔다. 소공주동(小公主洞)* 홍살문 안에 이르러 처녀는 중문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심생은 망연자실하여 한참을 배회하다가 이웃 노파를 붙들고 자세히 알아보았다. 늙어서 은퇴한 호조(戶曹) 계사(計士)*의 집이요, 딸 하나만을 두었고, 나이는 열 예닐곱이요, 아직 시집가지 않았다는 등등. 처녀가 거처하는 곳을 물었더니

노파는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좁은 골목을 따라가다 보면 회칠한 담이 하나 나올 거요. 담 안에 작은 집이 한 채 있는데 바로 처자(處子)가 거처하는 곳이라우.”

노파의 말을 듣고 난 심생은 아무리 해도 잊을 수가 없었다. 저녁이 다가오자 집에다 거짓말을 꾸며 댔다.

“서당 친구가 저랑 밤을 같이 보내자고 하니 오늘 밤부터 가 볼게요.”

드디어 인정(人定)이 되기를 기다려 그 집으로 가서 담을 넘었다. 초승달이 어스름 빛을 드리운 창밖에는 꽃과 나무들이 제법 아담하게 가꾸어져 있고, 창호지에 비치는 등불은 아주 환하였다. 벽에 등을 대고 처마 밑에 앉아서 숨을 죽이고 기다렸다. 방 안에는 여종 둘이 함께 있었다. 처녀는 나직한 목소리로 언문 소설을 읽는 중이었는데 꾀꼬리 새끼가 우는 듯 낭랑하게 들려왔다.

삼경(三更) 무렵, 여종들은 깊은 잠에 빠져 들었다. 처녀는 그제야 “훅!” 등불을 끄고서 잠자리에 들었다. 하지만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하고 무슨 고민이라도 하는 듯 몸을 뒤척거렸다. 심생은 잠이 들 리도 없었고 숨소리를 낼 수도 없었다. 새벽종이 울릴 때까지 그대로 있다가 담을 타고 나왔다.

그로부터 일과로 날이 저물면 가서 파루가 치면 돌아오곤 했다. 그렇게 한 지 스무날이 되었어도 심생은 조금도 게으름을 피우지 않았다. 처녀는 처음에는 소설도 읽고 바느질도 하며, 한밤에 등불이 꺼지면 잠도 잤으나, 번민하며 잠을 이루지 못하기도 하였다. 예니레를 넘기자 “몸이 편치 않다.”라고 말하고 겨우 초경(初更)인 데도 베개를 베고 누워서 자주 손을 던져 벽을 쳤고, 긴 한숨 짧은 탄식이 창을 넘어 들려왔다.

[B] 하루하루 밤을 보낼 적마다 심해지던 스무날째 저녁, 처녀는 홀연히 마루 뒤쪽으로 나와서 벽을 따라 돌아 심생이 앉아 있는 장소에 이르렀다. 심생은 깜깜한 어둠 속에서 불쑥 일어나 처녀를 잡았다. 처녀는 조금도 놀라지 않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도련님은 소광통교에서 만났던 분이 맞지요? 소녀는 도련님이 여기를 찾아오신 지 벌써 스무날인 것을 잘

알아요. 저를 잡지 마세요. 소리를 지르지만 하면 다시는 여기를 나가지 못해요. 저를 놓아주시면 제가 틀림없이 이 문을 열어 맞이할 거예요. 어서 저를 놓아요.”

심생은 곧이듣고 뒤로 물러서서 기다렸다. 처녀는 다시 빙 돌아서 방에 들어갔고, 그 다음에 여종을 불러 분부하였다.

“어머니한테 가서 큰 주석 자물쇠를 달래서 갖고 오너라. 밤이 아주 캄캄하여 겁이 난다.”

여종이 안방으로 가더니 오래지 않아 자물쇠를 갖고 왔다. 처녀는 드디어 약속한 뒷문에다 문고리를 아주 분명하게 걸고 손으로 자물쇠를 채우되 일부러 “철거덕!” 거는 소리를 냈다. 그리고는 바로 등잔불을 껐다. ㉠ 정적에 쌓여 잠이 깊이 든 듯했으나 실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 이옥, 심생전(沈生傳)

* 운중가, 소광통교, 소공주동: 서울의 지명.

* 계사: 회계원.

[문제 1] [A]의 주된 기능으로 적절한 것은? 36)

- ① 이야기의 전개 과정에 속도감을 준다.
- ② 긴장된 분위기를 부드럽게 이완시킨다.
- ③ 여자 주인공의 성격을 직접적으로 제시한다.
- ④ 전개될 사건을 짐작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한다.
- ⑤ 작중 인물의 시점으로 바뀌어 변화의 묘미를 준다.

[문제 2] [B]에서 ‘처녀’의 언행이 갖는 의미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다고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37)

- ① 처음부터 차분하게 행동한 것은 ‘심생’에 대한 호감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 위한 것일 거야.
- ② ‘심생’이 붙잡았을 때 놀라지 않은 것은 그가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일 거야.
- ③ 겁이 난다고 한 것은 여종에게 자신의 의도를 감추기 위해서일 거야.
- ④ 여종을 안방으로 보낸 것은 마음을 가라앉힐 시간을 벌기 위해서일 거야.
- ⑤ 문을 소리 내어 잠근 것은 자신의 거절 의사를 분명하게 전달하기 위해서일 거야.

[문제 3] ㉠의 상황에서 읊었을 만한 노래로 가장 적절한 것은? 38)

- ① 마음속의 끝없는 사연을 세세하게 옮겨다가
달빛 비친 사창과 비단 휘장에 님 계신 곳 전하고자
그제야 알뜰히 그리워하는 줄 짐작이나 하실까
- ② 꿈이 날 위하여 먼 데 님 데려왔거늘
간절하고 반갑게 여겨 꿈 깨어 일어나 보니
그 님이 성나서 갔는지 간 곳이 없어라
- ③ 각시네 꽃을 보소 피는 듯 시드나니
옥 같은 얼굴인들 청춘을 매었을까
늙은 후 찾는 이 없으면 뉘우칠까 하노라
- ④ 꿈에 다니는 길이 발자취 날작시면
님의 집 창박이 돌길이라도 닳으리라
꿈길이 자취 없으니 그를 슬퍼하노라
- ⑤ 아아 내 일이며 그럴 줄을 몰랐더니
있으라 하였다면 갔으랴만 제 구태여
보내고 그리는 정은 나도 몰라 하노라

[문제 4] 위 글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9)

- ① 섬세하면서도 생동감 있는 묘사가 돋보인다.
- ② 간결한 문장으로 장면을 빠르게 전환시켜 박진감을 준다.
- ③ 당시에도 자유로운 사랑에 대한 욕구가 있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 ④ 당시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어 선인들의 삶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 ⑤ 남자 주인공의 순수한 집념과 성공이 지닌 교훈적 의미를 찾아볼 수 있다.

비문학 1

- ① 범죄가 언론 보도의 주요 소재가 되고 있다. 그 이유는 언론이 범죄를 취재감으로 찾아내기가 쉽고 편익에 따라 기사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범죄 보도를 통하여 시청자의 관심을 끌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보도는 범죄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공적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지나친 범죄 보도는 범죄자나 범죄 피의자의 초상권을 침해하여 법적·윤리적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
- ② [A] 일반적으로 초상권은 얼굴 및 기타 사회 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을 타인이 함부로 촬영하여 공표할 수 없다는 인격권과 이를 광고 등에 영리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는 재산권을 포괄한다. 언론에 의한 초상권 침해의 유형으로는 본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무단 촬영·보도, 승낙의 범위를 벗어난 촬영·보도, 몰래 카메라를 동원한 촬영·보도 등을 들 수 있다.]
- ③ [B] 법원의 판결로 이어진 대표적인 사례로는 교내에서 불법으로 개인 지도를 하던 대학 교수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는 현장을 방송 기자가 경찰과 동행하여 취재하던 중 초상권을 침해한 경우를 들 수 있다. 법원은 '원고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연습실을 무단으로 출입하여 취재한 것은 원고의 사생활과 초상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시했다. 더불어 취재의 자유를 포함하는 언론의 자유는 다른 법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되며, 비록 취재 당시 원고가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원고의 연습실과 같은 사적인 장소는 수사 관계자의 동의 없이는 출입이 금지되고, 이를 무시한 취재는 원칙적으로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 ④ 이 사례는 법원이 언론의 자유와 초상권 침해의 갈등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보여 주고 있다. 또한 이 판결은 사적 공간에서의 취재 활동이 어디까지 허용되는가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 ⑤ 언론 보도에 노출된 범죄 피의자는 경제적, 직업적, 가정적 불이익을 당할 뿐만 아니라, 인격이 심하게 훼손되거나 심지어는 생명을 버리기까지도 한다. 따라서 사회적 공익(公器)인 언론은 개인의 초상권을 존중하고 언론 윤리에 부합하는 범죄 보도가 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 범죄 보도가 초래하는 법적·윤리적 논란은 언론계 전체의 신뢰도에 치명적인 손상을 가져올 수도 있다. 이는 범죄가 언론에는 매혹적인 보도 소재이지만, 자칫 ㉠ 이/가 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문제 1] 위 글의 논지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40)

- ① 사례를 열거하여 공통적인 논지를 도출하고 있다.
- ② 개념 정의와 사례 분석을 토대로 주장을 펴고 있다.
- ③ 대립되는 주장을 소개하고 합의점을 도출하고 있다.
- ④ 새로운 이론을 통해서 기존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 ⑤ 여러 주장의 문제점을 분석한 후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문제 2] [A]를 바탕으로 다음의 표를 작성하였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41)

		권리의 내용	침해의 유형	법적 구제(救濟)
초상권	인격권	㉠	정신적 고통	㉡
	재산권	㉢	경제적 손실	손해 배상. 부당 이득 반환

- | | ㉠ | ㉡ | ㉢ |
|---------------|-------------|-------------|-------------|
| ① 무단 촬영.공표 금지 | 초상 사용의 독점 | 명예 회복 청구 | 명예 회복 청구 |
| ② 무단 촬영.공표 금지 | 명예 회복 청구 | 초상 사용의 독점 | 초상 사용의 독점 |
| ③ 명예 회복 청구 | 초상 사용의 독점 | 무단 촬영.공표 금지 | 무단 촬영.공표 금지 |
| ④ 초상 사용의 독점 | 무단 촬영.공표 금지 | 명예 회복 청구 | 명예 회복 청구 |
| ⑤ 초상 사용의 독점 | 명예 회복 청구 | 무단 촬영.공표 금지 | 무단 촬영.공표 금지 |

[문제 3] [B]의 법원 판결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42)

- ① 알 권리는 절대적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인격권에 항상 우선할 수는 없다.
- ② 현행법으로 체포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사람의 초상에 관한 인격권이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 ③ 경찰과 동행 취재하는 것은 초상권 침해에 대한 면책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용인될 수 있다.
- ④ 범죄 보도가 공익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초상권을 침해할 경우에는 사법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⑤ 범죄 행위가 사적 공간인 연습실에서 이루어졌다고 하여 연습실이 법적 보호 대상의 지위를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문제 4] [가]에 들어갈 말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자 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43)

- ① 부메랑
- ② 아킬레스건
- ③ 뜨거운 감자
- ④ 악어의 눈물
- ⑤ 시금석

[문제 5] 위 글에서 언급되지 않은 것은? 44)

- ① 범죄 보도와 언론 윤리
- ② 범죄 보도의 사회적 기능
- ③ 언론 자유와 초상권의 충돌
- ④ 언론에 의한 초상권 침해 유형
- ⑤ 범죄 보도에 대한 시청자의 책임

비문학 2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사진이란 시간을 정지시킨 기록물이다. 정지된 시간은 카메라의 셔터가 찰각거리는 찰나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사진 속에 포착된 시간은 과거의 모든 인과 관계를 담고 있다. 우리는 갈비뼈가 앙상하게 드러난 에티오피아 어린이의 사진을 보면서 그 아이가 그 동안 얼마나 굶었을까를 생각하고, 전쟁터에 쓰러진 병사의 사진을 보면서는 그 이전에 있었을 참혹한 전쟁의 상황과 병사의 고통을 떠올리게 된다. 이처럼 사진은 과거를 향해 열린 창이며 우리는 그 창을 통해 정지된 시간 이전의 사연들을 들여다본다.

㉡ 사진은 세계의 이미지를 담은 기록물이다. 모든 초상화가 그렇듯이 사진으로 찍힌 그 시간은 사진이 없어질 때까지 하나의 기호 형태로 저장된다. 또한 인간이 사용하는 모든 기호들처럼 사진도 심리적인 특성들을 갖는다. 그리고 그 기호는 영상의 형태를 하고 있기 때문에 ㉠ **상형 문자 시대 이래 처음으로 다시 갖게 된 상형 문자**라고도 말한다. 사진의 기호는 사람이 쓰는 언어와는 아주 다르다. 그것은 주어도 서술어도 없이, 단지 하나의 장면과 어떤 이미지들로 구성된 언어인 것이다. 이처럼 사진은 서술적이라기보다는 단편적이지만, 이미지를 통해 전달되는 그 의미는 단편적인 것 이상의 것이다.

㉢ 미국의 사회파 사진 작가 워커 에반스가 1936년에 찍은 ‘어린이의 무덤’을 보라. 이 사진이 미국의 대공황 시절의 각박하고 어려운 삶을 기록한 사진의 일부라는 것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이 사진은 단순한 한 장의 사진 이상의 것을 생각하게 한다. 흙으로 금방 만들어진 무덤과 무덤 한 가운데 올려진 낡은 그릇은 죽은 어린이와 그 부모의 삶이 결코 풍족하고 편안하지 않았음을 짐작하게 해 준다. 이 경우 사진은 하나의 상징인 것이다. 오래 살아 남는 사진일수록 이러한 상징성이 강하게 들어 있어서, 우리를 깊은 사색에 빠지게 하고 그 사진의 배후로 끌어들이는다. 그래서 사진은 우리가 세계와 관계를 맺는 하나의 통로가 된다. 사진은 세계를 이미지로 만들어 기록하기 때문에, 사진을 찍는 사람에게도 그것을 보는 사람에게도 사진은 그 사람과 세계 사이에 어떤 관계를 만들어 준다.

㉣ 사람들은 흔히 사진이 세계를 있는 그대로 담아낸 것이고 사진을 찍는 것은 사건에 개입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는 착각을 하곤 하지만, 대부분의 사진에는 찍는 사람이나 찍히는 사람의 의도가 개입되어 있다. 그 의도는 나중에 사진을 보는 사람들-찍히는 사람과 찍는 사람을 포함해서- 이 사진을 통해서 어떤 이미지를 느끼고 어떤 사색을 하고 어떤 평가를 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과 관계가 깊다. 사진을 찍는 일 자체가 자신을 포함한 세계에 대하여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이 되는 것이다. 또한 보는 이에게 있어서도 사진은 ㉠ **어떤 대상의 대체물**의 기능을 하거나 적어도 사색을 통해 그 대상과 간접적으로 만나게 함으로써, 세계와 관계를 맺게 한다. 사춘기의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연예인의 사진을 모으거나 여행자들이 명승지의 사진을 담은 그림 엽서를 모으는 일도, 결국은 사진을 대상의 대체물로 삼거나 사진을 통해 꿈꾸고 상상하고 평가하면서 세계와 관계를 맺는 하나의 형태라 할 수 있는 것이다.

[문제 1] 위 글의 내용으로 교양 강의를 한다고 할 때, 이를 홍보할 문구로 가장 적절한 것은? 45)

- ① 보도 사진의 진실성, 어디까지 믿어야 할까?
- ② 사진에 관한 모든 것, 작가론에서 작품론까지.
- ③ 현대 사진의 역사와 특징, 궁금하지 않으세요?
- ④ 사진으로 세상 읽기, 그 근거와 가능성을 보여 드립니다.
- ⑤ '사진사'인가, '사진 작가'인가? 사진의 예술성을 검증한다.

[문제 2] 다음의 사진을 감상하면서 나는 대화이다. 위 글의 논지에서 벗어난 것은? 46)



- ① 아래에서 위를 올려다보는 구도야. 그렇기 때문에 태극기와 높이 솟은 건물의 의미가 강조되는 것 같아.
- ② 두 사람이 건물 앞에서 태극기를 계양하고 있는 모습을 삼각형 구도를 사용하여 찍은 사진이야.
- ③ 군인들이 태극기를 올리고 있는 장면으로 보아 전투에서 이긴 것을 기념해 두기 위해 찍은 사진이야.
- ④ 이 태극기를 올리기까지 얼마나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얼마나 많은 희생이 있었을까?
- ⑤ 후손들도 이 사진을 본다면 국가와 민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될 거야.

[문제 3] 위 글을 읽은 후 비판적 의견을 제시하는 글을 쓰기 위해 다음과 같은 메모를 작성하였다. ㉠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47)

<제시할 의견> : 사진은 세계를 잘못 이해하게 만들 우려도 있다.
 <의견의 근거>
 1. 사진의 속성
 가. _____ ㉠ _____
 나. 찍는 사람의 의도가 반영된다.
 2. 그로 인한 문제점
 가. 해석의 애매성으로 인해 오해를 유발할 수 있음
 나. 사실 왜곡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음

- ① 무제한의 복사가 가능하다.
- ② 한 순간의 모습만을 담을 수 있다.
- ③ 실재하는 대상만을 재현할 수 있다.
- ④ 일정한 기계 장치에 의해 만들어진다.
- ⑤ 도구와 기술에 따라 질적인 차이가 커진다.

[문제 4] ㉠에 담긴 의미와 거리가 먼 것은? 48)

- ① 사진은 해석을 필요로 한다.
- ② 사진은 의미를 갖는 기호이다.
- ③ 사진은 기록의 수단으로 이용된다.
- ④ 사진은 과학 기술 발전의 산물이다.
- ⑤ 사진은 영상의 형태를 지니고 있다.

[문제 5] ㉡의 예로 들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49)

- ① 주민등록증에 붙은 증명 사진
- ② 화재 사건 관련 기사에 첨부된 불탄 가옥의 사진
- ③ 박물관의 안내 책자에 신기 위해 찍은 미술품 사진
- ④ 여러 인물의 각 부분을 컴퓨터로 합성하여 새 인물로 창조한 사진
- ⑤ 풍경화의 본으로 쓰기 위해 찍은, 석양녘 바다의 모습을 담은 사진